

의료기기 제조업체 - 우진시스템

기술정보신뢰성과 행정사무관 이덕웅
(02)509-7232 dwlee@ats.go.kr



우진시스템 이성근 대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쌍용 II타워” 아파트형 공장 6층에 자리잡고 있는 우진시스템은 동건물이 건축한지 얼마안되어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이 공장이라기보다는 영락없는 원룸같이 이국적이고 소음이 거의 없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우진 시스템을 소개하면 동회사는 초음파 중주파 저주파 치료기 등의 의료기기와 미단 관련기기, 물리치료 관련 장비, 피부미용기기류 등을 전문 제조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2001년 기업내부설연구소의 설립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한 차원 발 빠른 모습으로 신제품 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현재 첨단 의 핵심기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이다.

생산분야는 메디컬, 에스테틱, 헬스 운동기기등 크게 세분야로 나눌수 있고, 초음파, 저주파치료기, 미용기기, 감압치료기, 운동기기등 주력업종에서 UTS-1000R (초음파 중주파기기), SKINBEAU(개인용 미용기), SVI-3000 (이온 피부미용기), CM-4000 (미단치료기), MS-2000R (이온, 초음파 피부미용기), HIFKIN (개인용 조합자극기), JFTVIBF(진동트레이닝기)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수직진동운동기 체트바이브는 진동판에서 수직상하진동으로 충격을 발생시키고 그진동을 이용자의 몸에 전달하여 운동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진동기구로, 근육 세포의 수축과 이완현상이 반복되어 근육손상없이 자연스런 긴장상태가 유지되어 효과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다. 또한 스킨스너머, 초음파, 비타민 트위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헤르킨’은 미용기기 하나에 초음파와 이온 기능을 간단히 합쳐놓은 초음파 피부마사지 제품으로, 각각의 고가장치를 하나로 통합시킨 최초의 토달케어 제품이다.

이러한 다수의 제품에 있어 특허는 물론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의 출원으로 2003년 신기술 우수 벤처기업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2004년 경기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프론티어 기업선정과 벤처기업 대상 중소기업청장 표창과 더불어 정부포상 과학 기술부 장관

상을 수상했다. 또한 새롭게 펼쳐지는 무한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FDA, CE, S, PSIE, ISO9001, EN 16002 등의 인증 등을 획득했다.

급격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우진 시스템은 매년 200%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직진동운동기 제1타이브는 2004년 작년 한 해 동남아시아에만 100만불수출을 달성했으며, 2005년 현재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 UAE,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등에 수출이 되고있다. 조음과 마사지기인 헤르키어라는 브랜드로 이미 미국, 동남아시아, 일본과의 에이전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자사의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의료계는 의료기기의 대부분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만 의존해왔다는 게 현실이다. 최근 웰빙열풍이 더해져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차지하는 국내제품시장 점유율은 약 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발달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첨단 의료장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의료기기의 세계적 육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력 확보에 중력을 기울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진 시스템은 의료기기 자동시스템, 개인용 복합 의료기기, 운동기기 등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2005년 상품화하여 출시될 예정이고, 기존의 OEM 방식에서 독자적 해외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앞으로 수출비중을 본격적으로 더욱 확대한 계획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인간 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의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속한 시장 대응, 세계적 경쟁력 확보하는 메디컬 벤처기업으로 거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공대를 졸업한지 10여년, 아직도 사업가 티가 전혀 나지 않음은 순수한 모습의 이상적인 사장은 벤처기업 창업 후 한차례 고비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 동 분야에서 자신있게 사업에 몰진할 거라고 거듭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 동회사의 부강한 발전을 기원한다. **표준**

